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0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3월 10일 (음력 2월 3일) 월요일

민주 늑장 공천 대혼란

루머 난무·탈법 기승·유권자 후보검증 촉박 … 부작용 속출

총선 D-30 현역 물갈이 기준 여론조사 50%·의정활동 50%

18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통합민주당이 1차 공천자도 발표하지 못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통합민주당이 공천 일정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탈·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유권자들도 후보 검증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9일 통합민주당에 따르면 공심위는 호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적게는 2배수 많게는 4배수로 압축하고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공심위는 이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할 현역의원을 최종 확정하고 단수 공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을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보안을 이유로 최종 후보 공천 방법과 일정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공심위는 현역 의원 공천 배제 기준도 9일에야 발표,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심위는 이날 현역 배제 기준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50%, 나머지 50%는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여론조사 경선 실시, 전략공천 여부 등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공천에 관련된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다.

당장 후보압축과 함께 이날 실시된 여론조사와 관련, 압축 후보군에 합류된 일부 인사가 소위 공심위 코드에 의해 선정됐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모 지역구는 전략공천 지역이며 다른 지역구는 경선지역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횡행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현역의원들의 경우, 아직까지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공천작업 지연으로 유권자들은 후보 검증 기회 박탈에 대해 허탈해 하고 있으며, 소지역주의 조장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매화마을 봄맞이 인파 봄기운이 완연한 9일 광양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광양 매화 문화축제' 현장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매화를 보면서 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남 땅끝 난개발 '몸살'

양식장·펜션·모텔·주유소 등 난립

관광지 보호 체계적 대책 마련 시급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해남 땅끝 주변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은 매년 전국에서 8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개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 소유 토지가 대부분인 탓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남 땅끝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북평~송지면 국도 77호선 22km 구간에는 양식장과 펜션, 모텔, 주유소 등 20여개의 시설물이 난립해 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의 '전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選)'에 뽑힌 도로지만, 각종 난개발로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

해남 송지면 통호리 마을 앞 해안도로는 10m 정도 떨어진 야산에 대규모 펜션 단지 건설을 위한 터닦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산 자락이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모했으며 바다와 인접한 길 건너편에는 주유소 공사로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됐다. 인근 해안가에도 양식장 등 수산 관련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같은 난개발은 해남군이 지난 1986년 해남 송호·땅끝지구 45만5천㎡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하면서 해안도로 주변 부지 등을 관광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이 제한돼 난개발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뒤늦게 지난 2001년 땅끝 관광지 지정 면적을 64만5천100㎡로 확대했지만, 땅끝 해안도로 주변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지정이 보류됐다.

해남군은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땅끝의 경관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용역에서부터 지정 확정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난개발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지 지정 당시 땅끝 관광권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일부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땅끝 경관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lucky@

민주 호남 예비후보군 2~4배수 압축

최종 여론조사 실시

통합민주당이 9일 호남지역 예비후보군을 2~4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막판 공천 작업을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전북을 시작으로, 9일 광주에 이어 10일 전남 예비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광주 동구의 경우 양형일 의원과 박주선 전 의원, 광주 북구갑은 강기정 의원·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오형근 조선대 의대 교수 등이다. 북구 을은 김태홍 의원·임내현 전 광주고검장·김재균 전 북구청장 등이며, 광주 남구는 지병문 의원·정기남 정동영 대선 후보 공보특보·이윤정 전 한국전력 KDN 상임감사·서정성 아이안과 원장 등으로 압축됐다.

광주 서구 갑은 유종필 통합민주당 대변인·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송갑석 정동영 후보 중앙선대위 청년위원장 등이며, 광주 서구 을은 정동채 의원·김영진 전 의원·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등 4명이다. 광산구 갑은 김동철 의원과 심재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이며, 광산구 을은 이용섭 전 건설부장관·나병식 풀빛미디어 회장·김승남 구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고검장 이준보·광주지검장 황희철

법무부 인사

〈이준보 고검장〉

〈황희철 지검장〉

법무부는 지난 8일 광주고검장에 이준보 대검 공안부장을, 광주지검장에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프로필 8면〉

신상규 광주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안창호 광주고검 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길태기 광주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발령됐다. 광주고검 차장에는 조한욱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에는 한명관 서울동부지검차장이 발령됐다. 한 차장은 광주지검 차장 발령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명동성 현 지검장을 유임시키고 대검 중수부장에 박용석 청주지검장을, 대검 공안부장에는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권재진 대검 차장은 유임됐고, 법무부 차관은 앞서 문성우 검찰국장이 임명돼 10일 취임한다. 11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17명이 승진했고 30명이 자리를 옮겼으며 4명은 유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주요학력 및 경력
변호사 김 규 장 올림
개업장소 : 광주시 동구 금남로 302 (지산동 709-15) 정광빌딩 2층 (광주지법후문)
대표전화 : (062)225-8383/8484 FAX : (062)225-8384